

한국어 의미학 7, 2000.

범주화와 언어학

박 정 윤*

(한국의대 영어학부)

<Abstract>

Park Jeong-woon. 2000. Categorization and Linguistics. *Korean Semantics*, 7.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prototype theory and discusses how cognitive linguistics incorporates prototype theory. It first presents how categories are characterized in the classical theory of categorization. It then discusses three phases of the development of prototype theory: pre-Rosch, Rosch, and post-Rosch. In the first phase, many studies such as Wittgenstein (1953) and Berlin & Kay (1969) show that the classical theory is wrong. In the second phase, Rosch shows in a series of experiments that prototype effects are real and contributes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prototype theory. In the third phase, research on categorization centers on the causes of prototype effects and category structure. This study then argues that linguistic theory must be compatible with what the research on categorization has discovered, because linguistic categories show prototype effects like general categories.

핵심어: 범주화, 원형이론, 원형효과, 인지언어학, 다의어

* 본 연구 논문은 1999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1. 머리말

범주화란 인간의 사유, 인식, 행위, 언어사용 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다른 것들 사이에서 같은 것을 보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예를 들어, 소, 돼지, 말, 개 등을 보고 가축이라고 범주화할 경우 그러한 서로 다른 개체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러한 공유된 속성들에 근거하여 그들을 가축이라고 범주화한다. 이러한 다름 속에서 같음을 보는 범주화의 개념은 일반인의 상식일 뿐만 아니라 범주화에 대한 고전적 이론의 핵심이기도 하다.

“공유된 속성”에 근거한 그러한 고전적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체계화한 이래로 이천 년이 넘도록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Wittgenstein(1953)은 범주의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론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했고, 그 이후 철학, 인류학, 심리학,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범주화에는 공유된 속성 이상의 많은 것이 있음을 밝혀왔다.

이 연구에서는 고전적 범주이론의 특성과 그간의 범주화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하고 언어학과 범주화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범주화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하고, 3절에서는 언어에서의 “원형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4절에서는 원형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인지언어학의 특성들에 대해 논의한다.

2. 초기 원형이론 연구

고전적 범주이론에서 범주는 추상적인 용기로 인식되고, 그러한 용기는 사물을 그 안에 포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별한다. 하나의 범주 속에 들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공통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속성들이 그 범주를 정의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이러한 고전적 범주이론이 갖는 함축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용기가 세상을 안과 밖으로 분명하게 구분하듯이 범주는 그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을 구분하는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의 범주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어떤 한 범주의 구성원들 각각은 그 범주를 정의하는 공통의 속성들(필요충분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구성원들과 범주의 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셋째, 범주는 범주화하는 주체인 인간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범주라는 것이 구성원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속성들에 의해서만 정의된다면, 범주는 범주화를 수행하는 인간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전적 범주이론은 오랜 기간 동안 타당한 것으로, 심지어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지만, 이는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한 정의라기보다는 선형적인 정의였던 것이다. 비트겐슈타인 이후 여러 학문 분야에서 많은 학자들이 그러한 범주의 고전적 정의가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한 그룹은 Wittgenstein(1953)의 “가족 유사성” 이론에서 Rosch(1973, 1978)의 “원형이론”에 이르는 연구들로 고전적 범주이론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이는 연구들이 주종을 이룬다. 다른 한 그룹은 Rosch 이후의 연구들로 “원형효과(prototype effects)”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이다. 이들 각 그룹의 대표적인 연구들을 차례로 살펴보겠다.

Wittgenstein(1953)은 고전적 범주이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최초로 심각하게 논의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고전적 범주는 경계가 분명하고 그 경계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속성들에 의해 정의된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game¹⁾과 같은 범주는 그러

1) Wittgenstein이 범주 game의 구성원의 예로 든 board-games, card-games, ball-games, Olympic games 등에 사용된 game을 한 단어의 우리말로 옮길

한 고전적 범주모형을 따르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board-games, card-games, ball-games, Olympic games 등이 모두 game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데 과연 이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속성들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이 모든 것들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을 볼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game이라는 범주의 구성원들이 될 수 있는가? 비트겐슈타인은 이들 구성원 사이에 서로서로 부분적으로 유사성이 있고 그러한 유사성들로 인해서 game이란 범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B는 A와 부분적으로 유사성이 있고, C는 B와, 그리고 D는 C와 부분적인 유사성이 있어서 이들은 하나의 범주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A와 D는 서로 공유하는 속성이 없다할지라도 그러한 연쇄적인 유사성으로 인해 같은 범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유사성을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s)”이라고 했다. 즉, 가족의 구성원들이 체격, 얼굴모습, 눈의 색깔, 기질 등을 서로 부분적으로 닮았듯이, 부분적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범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주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그 범주를 정의하는 필요충분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유사성이 있으면 된다는 것은 고전적 범주이론의 토대를 와해시키는 것이었다.

한편 Berlin & Kay(1969)는 98개 언어들의 기본 색채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범주내 구성원들의 위상이 동등하지 않음과 범주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음을 보였다.²⁾ 이들은 대상 언어들 각각의 기본 색채어들을 정하고 그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에게 표준 색채 표본을 보여 주면서 기본 색채어(예를 들어, 빨강)의 가장 좋은 예를 가리켜보라고 하면 같은 언어의 화자들은 물론이고 서로 다른

수 없어 영어 단어 game을 그대로 사용한다.

2) Berlin & Kay(1969)에서는 기본 색채어의 기준으로 한 단어로 된 토박이어, 다른 용어에서 확장되지 않은 것, 적용되는 대상이 특정 사물로 한정되지 않은 것,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등 7가지를 들고 있다.

언어의 화자들 사이에서도 일치를 보였다. 즉, 색채표본에서 같은 지점을 가리켰다. Berlin과 Kay는 그러한 색채들을 초점색이라고 명명했다. 초점색의 존재는 범주 구성원들의 위상이 동등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더 좋은 범주의 예가 있고 덜 좋은 범주의 예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실험은 피실험자들에게 기본 색채어(예를 들어, 빨강)의 경계를 표시해 보라고 하면 다른 언어 사용자들 사이에도 다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다르며, 심지어는 동일 인물이 서로 다른 시간에 했을 때도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범주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음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범주경계의 모호성은 Labov(1973)의 컵, 머그잔, 사발, 꽃병과 같은 가정용 그릇들을 가지고 한 실험에서도 잘 나타난다. Labov는 피실험자들에게 일련의 그릇들의 그림을 보여주며 이름을 대라고 했다. 그릇의 모양이 아래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며, 윗면의 지름과 높이의 비율이 같고, 손잡이가 있을 때는 모두 컵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윗면이 넓어지며 높이가 낮아져갈수록 사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 또한 그릇에 담겨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도 피실험자들의 반응은 달라졌다. 뜨거운 커피가 담겨있다고 가정했을 경우는 컵이라 부르는 비율이 증가했고, 짓이긴 감자가 담겨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사발이라 부르는 비율이 증가했다.

이러한 일련의 실험들은 범주경계의 모호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동일한 그릇이 담고 있는 내용물에 따라 다르게 범주화되고 있는 실험결과에서, 범주화의 기초가 되는 개체가 가지고 있는 자질들은 범주화의 주체인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내재적이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문화 속에서 그 개체가 갖는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 원형이론의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영역은 “기본층위 범주화(basic level categorization)”에 대한 연구이다. 책상 앞에 있는 동일한 물건을 지시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구’라고 부

를 수도 있고, ‘의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는 ‘회전의자’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들은 서로 상하관계로 연계되어 있다. 즉, ‘의자’는 ‘가구’의 하위어인 동시에 ‘회전의자’의 상위어가 된다. 이러한 계층관계에 있는 범주들을 분류하는 전통적인 분류법(taxonomy)에서는 ‘의자’와 같은 중간 단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Brown(1965)이나 Berlin et al.(1974)에서 사람들은 의자, 개, 차 등이 있는 중간단계에서 일차적으로 범주화를 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그러한 계층을 “기본층위(basic level)”라고 칭했다. 그리고 그러한 기본층위 범주들을 일반화하여 가구, 동물, 탈 것 등이 있는 상층위(superordinate)를 구축하고 또 기본층위 범주들을 세분화하여 회전의자, 안락의자, 식탁의자, 샵살개, 진돗개, 불독, 승합차, 스포츠카, 지프차 등이 있는 하층위(subordinate)를 만든다는 것을 밝혀냈다.

의자, 개, 차 등이 있는 기본층위 범주들은 이름이 다른 층위에 있는 것들보다 가장 짧고,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중립적인 문맥에서 가장 많이 쓰이며, 동일한 영상을 갖을 수 있는 최상의 단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Brown 1965, Cruse 1977, Rosch et al. 1976 참조). 마지막 두 가지 특성에 대해 부연하자면, 예를 들어 소파 옆에 있는 앉아있는 동물을 보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즉 중립적인 문맥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본층위어를 사용하여 ‘고양이’가 소파 옆에 있다고 말하지 상층위어인 ‘포유류’ 또는 ‘동물’이 있다고 하거나 하층위어인 ‘페르시안 고양이’가 있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자’, ‘개’, ‘차’와 같은 기본층위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상층위어인 ‘가구’나 ‘동물’ 등에 대한 모습을 떠올려 보려고 하면 전체를 포괄하는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없고 그들의 기본층위어인 ‘의자’나 ‘개’의 영상만을 떠올릴 수 있다. 즉, 상층위어는 고유한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회전의자’나 ‘샵살개’ 등과 같은 하층위어들은 물론 고유한 영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그것은 상응하는 기본층위어의 영상에 약간의

세부적인 사항만이 첨부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영상과 관련 하여 기본층위가 가장 고유하고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층위 범주의 특성들이 시사하는 것은 우리가 계층적 분류에서 상층위도 하층위도 아니고 기본층위의 범주들과 가장 밀접하게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기본층위는 범주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층위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과학적 분류에서는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여러 분과 학문들에서 기본층위가 범주화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층위라는 것을 입증했다.

이러한 범주에 대한 개별적인 초기 연구들은 Rosch에 의해 체계적인 원형이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Rosch의 원형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범주 구성원들 사이의 비대칭성과 범주 내에서의 비대칭적 구조를 보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용된 실험방법으로는 등급 매기기, 반응속도 재기, 좋은 예 들기, 유사성 정도의 비대칭성, 일반화의 비대칭성 등이다. 예를 들어 ‘새’ 범주의 등급 매기기 실험에서는 피실험자들에게 로빈, 제비, 펭귄, 타조 등을 보여주고 가장 새다운 것은 7을 주고 가장 새답지 않은 것은 1을 주게 하여 등급을 매기는 실험을 했는데 로빈이 가장 새다운 것으로 그리고 펭귄이나 타조가 가장 새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응속도 재기 실험에서는 로빈, 제비, 펭귄, 타조 등을 보여주며 각각에 대해 새냐고 묻고 그 반응 속도를 잰는데, 이 실험에서도 로빈에 대한 반응이 가장 빨랐고 펭귄이나 타조에 대한 반응은 가장 느렸다. 이처럼 모든 실험에서 로빈은 가장 새다운 것으로 그리고 펭귄이나 타조는 가장 새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osch는 이러한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연구들을 통해 고전적 범주이론에 상처되는 현상들에 대한 개별적 연구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시각을 제공하면서 원형이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Rosch 1973, 1978, Rosch et al. 1976 참조).

Rosch의 범주에 대한 연구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 1기

는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로 원형의 문제를 각각의 현저성, 기억의 정도, 그리고 자극의 보편화의 문제로 보았었다. 제 2기는 1970년대 초에서 중반에 이르는 시기로 원형효과가 마음속에 있는 범주의 내부구조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생각했었다. 제 3기는 1970년대 말 이후로 원형효과와 심리표상과 일대일의 대응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원형효과는 단지 심리표상이 어떤 것이 될 수 있는가의 가능성에 대한 제약만을 할뿐이라고 생각했다. 즉, 범주의 심리표상이 적어도 원형효과에 배치되지 않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최근의 범주화 연구

언어학에서의 최근의 범주화에 대한 연구는 원형효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과 범주의 구조를 밝히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

Lakoff(1987)는 우리가 “이상화된 인지모형(idealized cognitive model, ICM)”들을 통해 우리의 지식을 체계화하며, 범주구조와 원형효과는 그러한 지식체계의 부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bachelor(총각)는 전통적인 성분분석에서 [UNMARRIED, ADULT, MAN]으로 알려져 있다.³⁾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자들(예를 들어, 대학생들)을 보며 총각이라고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김수환 추기경이나, 아기 때 정글에 버려져 인간사회에서 격리되어 자란 타잔과 같은 사람, 또는 동성애자들을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자라는 조건은 다 갖추고 있지만 그들을 총각이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즉, 총각이란 범주도 원형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한 ‘총각’에 대한 원형효과는 왜 생기는 것인가? 총각이란 단어는 (일부일처제의) 결혼제도나 결혼적령기 등을 포함하는 이상화

3) 여기에서 bachelor의 원형효과에 대한 설명은 Fillmore(1982)와 Lakoff(1987)에 기초한 것임.

된 인지모형에 비추어 정의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인지모형에서는 총각은 단지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자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원형효과는 그러한 이상화된 인지모형과 실제 세계와의 일치의 정도에 따라 생길 수 있다. 즉, 세상의 실제 모습이 그러한 이상화된 모형과 완벽하게, 잘, 혹은 그럭저럭 일치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잘 또는 전혀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인지모형과 실제세계와의 일치의 정도에 따라 원형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총각’은 등급화된 범주가 아니라 관련된 이상화된 인지모형에서는 “이냐-아니냐”의 디지털적 범주인 것이다.

이러한 이상화된 인지모형에 따른 원형효과와 다른 예로 Lakoff (1987)는 ‘어머니’라는 범주를 들고 있다. ‘어머니’의 개념은 출산모형(나아준 사람), 유전모형(유전자를 제공한 여자), 양육모형(길러준 여자), 결혼모형(아버지의 부인), 가계모형(가장 가까운 여자 조상) 등 다양한 인지모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원형적인 어머니는 이들 개별모형들을 모두 합한 그런 개념의 어머니인 것이다. 즉, 아버지와 부부관계에 있고, 유전자를 제공하고, 나아주고, 길러주고 그런 사람이 가장 전형적인 어머니인 것이다. 이러한 이상화된 인지모형을 Lakoff는 군집모형(cluster model)이라고 했다. 이러한 군집모형에서는 군집을 형성하는 개별 모형들이 결핍되면 될수록 범주의 주변적인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Lakoff(1987)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이상화된 인지모형들과 원형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원형효과와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범주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기존의 용기 은유에 의한 범주 구조는 원형이론적 범주연구들에서 밝혀온 범주구조의 특성들을 표상할 수 없다. 즉, 모든 범주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필요충분조건)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범주경계가 존재하지 않고, 범주 구성원간의 위상의 차이 --더 좋은 구성원과 덜 좋은 구성원-- 등의 범주의 특성들을 기존의 용기범주 모형은 제대로 표상해낼 수 없다. 이러한 범주의 구조적 특성을 표

상하는 방법으로 Lakoff(1987)는 방사상 범주(radial category)를 제안한다.

방사상 범주에는 중심적인 하위범주가 있고, 그러한 범주의 변이형들인 비중심적인 하위범주들이 있어, 이들이 중심범주를 핵으로 하여 방사상적 모형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논의한 범주 ‘어머니’의 경우 각 모형들이 결합된 중심적 하위범주가 있고 그 중심하위범주의 변이형인 비중심적 확장범주들이 방사상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변이형들은 중심하위범주로부터 일반적인 규칙들에 의해서 확장된 것이 아니고 동기화된 관습에 의해 확장된 것들이다. 일반적인 규칙들에 의한 것이라면 규칙이 적용되기만 하면 반드시 그러한 변이형들이 생겨야만 하겠지만 동기화된 관습에 의한 경우 설령 그러한 확장을 가능하게 해 주는 동기가 있다해도 확장된 변이형들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변이형이 존재하는 것은 관습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박정운(1999)에서 저자는 우리말의 접사 -(으)로가 방사상 범주를 형성하고 있음을 논의했다. 접사 -(으)로는 다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의미/기능을 가지고 있다.

- 인호가 어제 부산**으로** 갔다. (경로: 지향점)
- 인호의 입이 왼쪽**으로** 돌아갔다. (경로: 방향)
- 인호는 이 길**로** 갔다. (경로: 경로)
-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했다. (상태변화)
- 그분은 그곳에서 학장님**으로** 계셨었다. (자격)
- 회의를 좀 앞**으로** 당깁시다. (시간)
- 인호가 신용카드**로** 그 문을 열었다. (도구)
- 지난번 홍수**로** 다리가 무너졌다. (원인)
- 쌀**로** 술을 빚는다. (재료)
- 인호는 건성**으로** 책을 읽었다. (양태)

o 인호는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부사어)

접사 -(으)로의 이러한 다양한 의미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가장 보편적인 견해는 최현배(1969) 등에서처럼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입장을 동시에 견지하는 것이다. 즉, 접사 -(으)로를 몇 개의 다른 접사로 분류하고(동음이의어적 접근), 그 각각을 중심으로 몇 개의 의미들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다의어적 접근) 취급해 왔다. 정반대의 입장은 임홍빈(1974)으로 대표되는 핵심의미 접근방식이다: 접사 -(으)로의 모든 의미는 [+선택적]이라는 핵심의미를 공유하는 다의어라는 것이다.

박정운(1999)에서는 이 두 유형의 접근방식이 모두 주어진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함을 논의하고, 접사 -(으)로의 다양한 의미들은 다의어 현상으로 이들은 “경로”의 의미를 중심적 의미로 하고 “상태변화”, “자격”, “시간”, “도구”, “부사화” 등의 의미들은 그러한 중심의미로부터 확장된 변이형들임을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방사상 범주모형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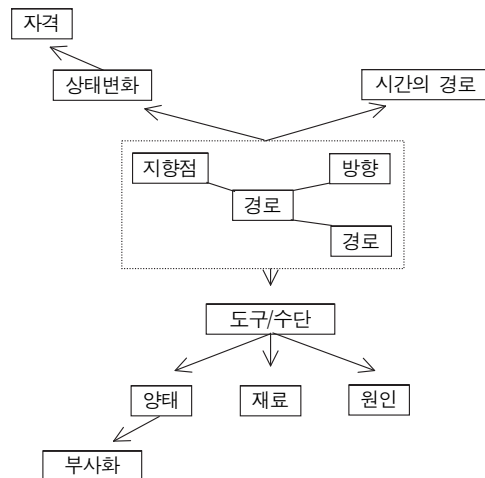


그림 1. 접사 -로의 다의어 망구조

그러한 변이형으로의 확장이 많은 경우 개념적 은유들에 의해 동기화 되었다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로”의미에서 “상태변화”로의 의미확장에는 [상태는 장소다]와 [변화는 이동이다]라는 개념적 은유를 통해 의미확장할 수 있고, “경로”에서 “시간”으로의 의미확장은 박정운(1998)에서 논의한 [시간은유]를 통해 이루어지고, “경로”에서 “도구/수단”으로의 의미확장은 [수단은 길이다]라는 개념적 은유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4. 언어에서의 원형효과

언어의 범주들은 과연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언어학 이론들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현대언어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Chomsky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언어학 이론에서는 언어능력은 다른 일반 인지능력과는 독립적인 단원(module)을 형성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Lakoff나 Langacker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지언어학에서는 언어는 우리의 일반적인 인지 장치들을 사용한다고 하는 가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범주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형효과를 보인다면 인지언어학자들의 가정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언어범주가 다른 일반범주들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면 Chomsky의 가정이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언어학 연구들이 범주구조와는 무관하게 언어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어범주들이 원형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유표성(markedness)은 언어학의 여러 분야에서 언어기술의 유용한 장치로 사용되어 왔다. 영어에서 단수와 복수가 있을 때 단수에는 아무런 표지가 붙지 않지만 복수에는 복수표지가 붙는다. 이 경우 아무런 표지가 붙지 않는 단수가 무표적(unmarked) 형태이고, 복수표지가 붙는 복수는 유표적인 형태로 알려져 왔다. 원형이론적으로 설명한다면 영어 수 범주에서 단수는

더 좋은 구성원이고 복수는 주변적 구성원으로 원형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의미현상에서도 이러한 유표성 현상이 나타난다. “길다-짧다”, “넓다-좁다”, “크다-작다”와 같은 반대말 짝들에서 짝을 이루는 두 단어가 동등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짝들에서 앞에 있는 단어가 무표적임을 보이는 현상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이들을 명사형으로 만들어 보면 앞 단어들은 명사형이 되는데 문제가 없으나(“길이, 넓이, 크기”), 뒤 단어들은 명사형을 만들면 어색하다(*짧이, *좁이, *작이”). 여기서 우리는 앞 단어들이 무표적 혹은 대표적임을 알 수 있다.

언어학에서는 어떤 언어적 표현의 문법성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고전적인 범주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즉, 그것이 문법적이든지 비문법적이든지 하는 이분법적 범주화만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다양한 문법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방식들을 채용해 왔다. 비문법적임을 나타내는 별표(*)와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움을 나타내는 물음표(?) 또는 이들의 결합들을 이용하여 문법성의 문제가 이분법적이지 않고 완전한 비문에서 완전한 정문까지 점진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왔다. 이 또한 고전적 범주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말 {이, 기, 리, 히}를 통한 “단형사동”의 기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Shibatani(1973)는 단형사동은 직접사역의 의미만을 표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기에게 밥을 먹였다는 엄마가 아기 입에 넣어 주어서 아기가 밥을 먹게 하는 직접사역 상황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엄마가 아기에게 밥을 먹으라고 말해서 아기가 스스로 밥을 먹는 간접사역 상황은 나타낼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한 주장에 반해, Yang(1976)은 그러한 단형사동 표현은 직접사역은 물론이고 간접사역도 표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단형사동이 간접사역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증거로 어느 회사의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외부 손님부터 태웁시다”

라는 글을 들고 있다. 즉, 외부손님을 육체적으로 먼저 타게 하라(직접사역)는 것이 아니고 외부 사람이 스스로 먼저 타게(간접사역) 양보를 하라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각각 해석의미론과 생성의미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언어학이론에 근거하여 논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론들은 고전적 범주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범주는 경계가 분명해야 하고 범주의 구성원들은 모두 같은 위상을 갖아야만 하는 것이다. 즉, 이들은 둘 다 원형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단형사동은 직접사역만을 나타낼 수 있든지 아니면 직접사역이나 간접사역을 구분 없이 모두 나타낼 수 있든지 하는 양자택일적인 주장을 해야만 했던 것 같다.

그러한 이론적 틀에서 벗어나 직관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단형사동은 전형적으로 직접사역 상황을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간접사역 상황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단형사동의 전형적인 기능은 직접사역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주변적인 기능으로 간접사역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는 원형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형사동의 그러한 특성이 더욱 확연히 들어 난다. 중세국어에서 단형사동은 직접사역 상황은 물론이고 간접사역 상황도 잘 표현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아히로 흰히 동어리 글키고*(令兒快搔背) <杜解十五 4a>”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아이에게 등을 시원하게 긁게 하고’라는 한문 원문을 번역한 문장이다. 여기에 쓰인 *글키고*는 단형사동의 형태로 간접사역의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城 밧기 닐굽 덜 일어 줍 살이시고* <月釋二 77a>”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도 *살이시고*는 단형사동의 형태로 ‘살게 하다’라는 간접사역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국어에서 단형사동은 직접사역은 물론이고 간접사역도 제약 없이 표현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간접사역의 표현 기능은 점점 “장형사동”(예, *등을 시원하게 긁게 하고; 성 밖에 살게 하고*)

이 대체하게 되어 현대국어에 와서는 *굵히다*나 *살리다*가 *굵게 하다*나 *살게 하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현대국어에서 단형사동은 전형적으로 직접사역을 나타내지만 아직도 부분적으로는 간접사역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고전적 범주이론의 틀에서 벗어나 언어범주의 원형효과를 인정할 때 언어현상의 실제 모습을 좀 더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게 된다.⁴⁾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언어범주가 일반범주와 같이 원형효과를 보인다면, 이는 언어능력이 생성문법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독자적인 체계에서 일반적인 인지능력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기능한다고 보기보다는 인지언어학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인지장치들을 이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5. 인지언어학

현대언어학은 대부분 모국어 화자가 자기 언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명시적 지식을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인지란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현대언어학은 모두 인지언어학이라고 불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인지언어학이라고 부르는 언어연구들은 Lakoff, Langacker, Talmy 등 일군의 학자들이 선도해가고 있는 연구들로서 이들은 Chomsky를 대표로 하는 연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일련의 가정들을 공유하고 있다.

Langacker(1991: 1)는 Chomsky를 필두로 하는 형식문법학자들이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다를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의 기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첫째, 언어는 일반 인지능력과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체계이다. 둘째, 문법(특

4) Lakoff(1987), Ungerer & Schmid(1996) 그리고 특히 Taylor(1995)에서는 언어에서의 다양한 원형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히, 통사부)는 어휘부나 의미부와는 분리되어 있는 자립적 체계이다. 셋째, 의미는 진리조건에 근거한 형식논리로 기술될 수 있다.

인지언어학에서는,⁵⁾ 물론 학자나 접근 방식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세 가지 기본적 견해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첫째, 언어는 다른 일반인지장치들과는 다른 독립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지 아니하며, 언어기술에는 일반적인 인지과정에 대한 참조가 필수적이다. 둘째, 문법은 구문들의 목록이며, 통사부는 자립적인 것이 아니다. 구문(construction)은 형태-의미의 짝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형태소나 단어도 형태-의미의 짝이기 때문에 구문이고 따라서 어휘부와 문법(통사부)이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지 않고 하나의 범주로 취급된다. 그리고 통사부와 의미부 또한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 셋째, 진리조건에 기초한 형식의미론은 언어표현의 의미를 기술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의미구조는 지식체계와⁶⁾ 관련하여 특징지어지고 그리고 의미는 개념화되는 상황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해석되는 방식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인지언어학은 이러한 기본적인 가정에서 기존의 언어학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것들에서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언어학에서 때론 명시적으로 때론 묵시적으로 고전적 범주이론에 근거한 많은 가정들을 해 왔다. 합성성(compositionality) 대 관용성(idiomatcity), 핵(core) 대 주변(periphery), 의미론 대 화용론 등이 그러한 이분법적 범주화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인지언어학에서는 이들이 이분법적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극과 극 사이의 연속체로 본다.

5) Unger & Schmid(1996)에서는 인지언어학 연구들을 체험적(experiential) 견해, 현저성(prominence) 견해, 그리고 주의적(attentional) 견해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6) 의미구조와 관련되는 지식체계를 Fillmore(1982, 1985)는 틀(frame)이라 부르고, Lakoff(1987)는 이상화된 인지모형(idealized cognitive model)이라고 하고, Langacker(1987)는 영역(domain)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지식체계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임지룡(1995, 1997)은 이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예를 들어, Chomsky(1986)에서는 언어현상을 핵과 주변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주로 핵 영역에 있는 현상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인지언어학에서도 좀 더 보편적인 구문과 제한적인 구문이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어현상이 핵 영역에 들어가는 것과 주변 영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양분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일종의 연속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을 언어현상 전체로 보는 접근을 한다 (Fillmore & Kay(forthcoming), Goldberg(1995) 참조).

또한 합성성과 관용성의 문제도 이분법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관용적인 구문들이 “바가지를 긁다”와 같이 생산성이 전혀 없는 특정한 하나의 표현에만 적용되는 것도 있겠지만, “맞아도 싸”나 “시험에 떨어져도 싸” 등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도 싸”와 같이 상당한 생산성이 있는 관용구문들도 있어 이 역시 두 극 사이의 연속체 개념으로 보고 있다 (Fillmore et al. 1988).

전통적으로 의미론과 화용론은 서로 배타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Fillmore(1985)는 정말 언어의 의미현상이 의미론과 화용론의 경계를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즉, 그러한 분류는 언어의 의미현상이 요구한 것이기보다는 연구자들의 편의상 인위적으로 갈라놓은 것이라는 논의를 전개한다. 의미론과 화용론도 두 극 사이의 연속체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같은 원리로 분석하고 기술하고자 한다.

이처럼 인지언어학은 범주에 대한 연구의 결과들과 상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본 가설들을 견지하고 그 토대 위에서 언어현상을 탐구하고 있다.

6. 맺음말

이 글은 고전적 범주이론의 대안으로 제시된 원형이론에 대해 논

의했다. 그리고 그러한 원형이론에 기초한 인지언어학의 특성들을 고전적 범주이론에 기초한 생성문법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고전적 범주이론에서는 범주 구성원들은 공통의 내재적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범주는 그러한 공유된 속성들(필요충분조건)로 정의된다. 따라서 범주 구성원들은 동등한 위상을 가지고 있고 또 경계가 분명하다. 고전적 범주이론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원형이론인데 이는 원형이론을 체계화하고 발전시킨 Rosch를 중심으로 Rosch 이전, Rosch, 그리고 Rosch 이후의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Rosch 이전 시기에는 고전적 범주이론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이는 연구들이 수행됐었다. Wittgenstein(1953)은 범주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유된 속성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이고 가족유사성이란 개념으로 범주의 구성원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범주경계의 모호성과 구성원들 사이의 위상의 차이 등도 이시기에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또한 기존의 계층적 분류(taxonomy)의 대안으로 기본층위 범주화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 졌다. Rosch는 반복해서 시행할 수 있는 일련의 실험들을 통해 개별적인 연구들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원형이론을 체계화하고 발전시켰다. Rosch 이후에는 원형효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일과 범주구조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또한 원형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인지언어학이 고전적 범주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생성문법과 기본적인 가정들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 논의했다. 언어의 범주가 일반 범주들과 같이 원형효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원형이론에 기초한 인지언어학이 좀 더 인간의 언어기능에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라는 믿음이다.

참고문헌

- 박정운(1998), “앞으로 한 달 뒤에 만납시다: 시간의 개념적 은유,” 언어와 언어학 23: 85-110,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 박정운(1999), “도구격 조사의 다의어 체계,” 언어 24.3: 405-25.
- 임지룡(1995), “의미의 인지모형에 대하여,” 어문학 57: 321-40.
-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 최현배(1961),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 Berlin, B., D. E. Breedlove, and P. H. Raven(1974), *Principles of Tzeltal Plant Classific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Berlin, B. and P. Kay(1969), *Basic Color Terms*,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Brown, R.(1965), *Social Psychology*, New York: Free Press.
- Brugman, C.(1981), Story of OVER. M.A. thesi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Bybee, J. and C. Moder(1983), “Morphological Classes as Natural Categories,” *Language* 59: 251-70.
- Chomsky, N.(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 Coleman, L and P. Kay(1981), “Prototype Semantics: The English Verb Lie,” *Language* 57: 26-44.
- Cruse, D. A.(1977), “The Pragmatics of Lexical Specificity,” *Journal of Linguistics* 13: 153-64.
- De Valois, R. L. I. Aramov, and G. H. Jacobs(1966), “Analysis of Response Patterns of LGN Cells,”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America* 56: 966-77.
- Fillmore, C. J.(1982), “Frame Semantics,”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ed. by Linguistic Society of Korea, 111-38, Seoul: Hanshin.
- Fillmore, C. J.(1985), “Frames and the Semantics of Understanding,” *Quaderni de Semantica* 6: 222-53.
- Fillmore, C. J. and P. Kay(Forthcoming), *Construction Grammar*, Standord: CSLI.
- Fillmore, C. J., P. Kay, and M. O'Connor(1988), “Regularity and Idiomaticity in Grammatical Constructions: The Case of Let Alone,” *Language* 64: 501-38.
- Goldberg, A.(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pper, P. J. and S. A. Thompson(1980),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 251-99.
- Kay, P and C. K. McDaniel(1978), "The Linguistic Significance of Meanings of Basic Color Terms," *Language* 54: 610-46.
- Labov, W.(1973), "The Boundaries of Words and Their Meaning," *New Ways of Analyzing Variation in English*, ed. by N. C. N. Bailey and R. W. Shuy, 340-73,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Lakoff, G.(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gacker, R. W.(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1: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 Langacker, R. W.(1991),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 Berlin: Mouton de Gruyter.
- Park, J.-W.(1994), Morphological Causatives in Korean: Problems of Grammatical Polysemy and Constructional Relation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Rosch, E.(1973), "Natural Categories," *Cognitive Psychology* 4: 328-50.
- Rosch, E.(1978), "Principles of Categorization," *Cognition and Categorization*, ed. by E. Rosch and B. B. Lloyd, 27-4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osch, E., C. Mervis, W. Gray, D. Johnson, and P. Boyes-Braem(1976), "Basic Objects in Natural Categories," *Cognitive Psychology* 8: 382-439.
- Shibatani, M.(1973), "Lexical versus Periphrastic Causatives i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9: 281-97.
- Wittgenstein, L.(1953), *Philosophical Investigation*, tran. by G. E. M. Anscombe, Oxford: Basil Blackwell.
- Yang, I.-S.(1976), "Semantics of Korean Causation," *Foundations of Language* 14: 55-87.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130-791

전화 번호: 02-961-4721

전자 우편: parkjw@hufs.ac.kr